

## 한국 ESCO사업, 태국 진출의 첫 발을 내딛다.

태국 방콕에서 한-태국 에너지효율 컨퍼런스 성황리에 마쳐

지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태국 방콕 더 웨스틴 호텔에서 한-태국 에너지효율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에너지효율 분야에서 양국 공공기관, 기업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사로 한국과 태국의 정부관계자 및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양국의 에너지절약정책, 에너지진단 및 ESCO산업과 LED산업, 에너지라벨링 프로그램 등 관련내용을 교차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컨퍼런스기간 동안 국내에서는 (주)에너지솔루션즈, 삼성에버랜드(주) 등 8개사가 참여하여 각 사의 보유기술 및 투자사례를 발표하였고, 태국은 E.E.I.(주) 등 2개사가 태국의 에너지효율시장에 대하여 발표했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은 발표뿐만 아니라 ESCO와 LED에 대한 홍보자료 배포 등 현지 협력업체 확보를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여 태국 기업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기도 하였다.

또한 3월 10일에는 에너지진단 및 ESCO등 에너지절약분야에서 한-태국간 협력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한-태국 에너지부 국장 양자회담이 이루어졌으며, 한-태국 정책현황에 관하여 의논하고 한국 ESCO가 태국에 진출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태국은 산업 및 상업 분야의 에너지소비를 2005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5%를 줄일 계획으



로 대형 공장 및 건물에 대한 에너지경영 법제화, ESCO등을 통한 재정지원, 효율등급 라벨링 제도, 고효율 조명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태국의 공동 에너지진단을 바탕으로 태국의 ESCO펀드, 혹은 한국의 ESCO펀드를 이용하는 등 공동 ESCO사업연계를 위한 협의도 이루어졌다.

3일째인 3월 11일에는 태국 FTI를 방문하여 태국의 에너지진단 및 ESCO 등 제도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태국에는 한국과 같은 의무진단 제도는 없으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MWh 이상인 사업장은 에너지사용량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태국은 1999년부터 ESCO가 도입되었으며 약 2006년부터 ESCO사업이 활성화 되어 현재 약 30개의 ESCO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태국에는 ESCO등록제도가 없으며,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사업 계약 후(성과보증 혹은 성과배분계약) 태국 대체에너지효율청(DEDE)의 승인을 받으면 ESCO 사업으로 된다. 아울러 ESCO사업으로써 DEDE의 인정을 받으면 태국투자청(BOI)으로부터 최대 8년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3일간의 컨퍼런스 기간 동안 양국은 에너지효율분야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ESCO공동사업 발굴을 위하여 유·무선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정부간 교류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우수한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과 ESCO사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태국 정부 및 기업인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한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컨퍼런스를 계기로 삼아 앞으로 양국의 에너지효율기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국내 관련 기업들의 태국 녹색시장 진출 활성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해 본다.

